NAVER
카페홈 가입카페 새글 내소식 채팅 박재형

전체글보기 【알립니다】 【Drawing】-煥 【Cartoon】- 煥 【Fiction】 - 煥 【完 - 끝났어요!】

카페정보 나의활동

매니저 S 홍새벽
since 2006.05.29.
카페소개

가지1단계
9,420 초대하기
즐겨찾는 멤버 814명
게시판 구독수 1,512회
우리카페앱 수 405회

주제 문학/창작 > 소설/인터넷소설

카페 글쓰기

카페 채팅

검색

즐겨찾는 게시판

전체글보기 89,694
카페태그보기
베스트게시글

【알립니다】
【알립니다】- 小
【경고리스트】
【의견&신고】
【등업게시판】

【EVENT】
【2019 활동이벤트】
【나의 라임오렌지나무】
【초자연적 또띠아】
【다회님만】
【홍보관】
홍보관 허가요청

:Community:

【가입인사】
【출석체크】
【릴레이 소설】
【끝말잇기】
【Behind Story】
【잡담코너】
【비평&추천】

【Fiction】 - 煥 >

[프롤로그] (정엘×??)프롤로그&1화

ko 운디네 1:1 채팅
2020.06.08. 16:01 조회 259

댓글 7 URL 복사

가입하고 팬픽만 찾아보다 처음쓰는 글이라 ★망작★ 예상됩니다!그래두 재밌게 봐 주시구 처음이라 세세한걸 잘 모르니 오타,지적 환영입니다.

===
평화롭고 조용한곳. 그곳에 신비로운 정령들이 뛰놀고 아름다운 보석꽃들이 널려있는 곳. 바로 정령계의 중심에 위치한 에바스 에덴이다. 그리고 그곳에 푸른머리의 한 사람(?)이 심심해하고 있다

"으아아아,너무 심심해애"
"큭큭큭,엘~그렇게 심심해?
"아!트로웰~요새 소환자도 없구 재밌는 일도 없구 할게 너~무 없어"
"하하,유희라도 다녀오는게 어때?"
"그치만 요새 뭘해도 재미가 없어"
"아!나한테 좋은 생각있어,엘"
"응?,그게 뭔데?"
"나도 유희 안한지 꽤 됬고 미네랑 이프리트도 지금쯤이면 심심할테니 우리 네명이서 다같이 유희를 가보는거야!"
"우리 다같이?"

-생각해보니 유희는 항상 따로 같지 같이 간적은 없었구나.꽤 재밌겠는데?-

"좋아!그럼 내가 이프리트랑 미네를 불러올게~"
《이동》

엘이 이프리트와 미네를 불러오자 네명의 정령왕은 에바스에덴에 앉아 어디로 유희를 갈지 회의를 하기 시작했다.

"음..일단 귀족은 번거로우니까 나랑 트로웰은 검사.이프리트링 미네는 정령사하는게 어때?"
"저는 상관 없습니다"《미네
"나도 좋아"《트로웰
"그러지뭐"《이프리트
"그럼 가장 중요한 어디로 갈지 인데..누구 좋은 생각 없어?"
"..."《전체 침묵

...그래 다들 생각해둔건 없구나. 뭐 나도 사실 딱히 좋은 생각이 나는건 아니다. 아크아돈을 다스리는데 모르는 곳이 당연히 없으니 흥미가 떨어지는 것이다.

"냐하하~그건 이 내가 해결해줄께~"

!!!이건 설마 카노스?...라기엔 목소리가 다른데?대체 누구지?
그때 그들의 눈 앞에 밝은 빛이 나타나며 점점 사람의 형태를 띄기 시작했다

:With 煥:
【버뮤다 삼각지대】 - 煥
【전력60분】 - 煥
【Cartoon】- 煥
【Drawing】-煥
【Quiz¿】 - 煥
【Fiction】 - 煥 N
【Etc】 - 煥
【完 - 끝났어요!】 N
:CREATION:
【Request】
【Cartoon】-Etc
【Drawing】-Etc
【Fiction】-Etc
:Operation:
게시물 리턴
【(구)가입인사】
【폐쇄예정】
:Past:
:지난 이벤트:
【2015 대항전】
【2016 활동이벤트】
【2017 콘테스트】
마니또
순간포착!
스킨&대문
LINK
접속멤버 1명
pjh5338
카페 인기 태그 more
최근 3일간 태그가 없습니다.
카페탈퇴하기

궁금한게 있을 땐 카페 스마트봇

"나?나는 바로 너희들을 창조한 주!신!이란 말씀!!"

-주신이라고?저사람이?-

주신에 대해 근엄한 이미지를 상상했던 엘의 상상이 와장창 무너졌다
뒤에있는 세사람을 돌아보니 표정이 다들 믿지 못하겠다는 눈치다
밀려나오는 한숨을 뒤로한채 엘은 주신에게 물었다.

"그나저나 주신님.해결해 주겠다는게 무슨소리에요?
"아차차~내가 그걸 까먹었네~지금 너희가 직면한 문제가 바로 어디로 갈지잖아?마침 나에게 좋은 생각이 있거든~"

-카노스같은 성격으로 보이는데 좋은 생각이라니 왠지 불안해지는데...-

"뭐..거기가 어딘데요?
"바로 다른 차원이지"
"!!!"
"아,아크아돈은 걱정마. 여기는 각각 물,불,바람,대지의 상급신들에게 맡겨두면 되니까"
"그래도 되요?
"물론 차원은 내가 정한 차원으로~"

내가 의견을 묻는식으로 뒤를 돌아보자 그들은 타차원에 대한 호기심으로 눈을 반짝이며 고개를 끄덕였다
잠시 정령어로 대화하던 그들은 내일 아침에 출발히기로 했다

"좋아요. 그럼 출발은 내일 할께요"
"냐하하~잘 생각했어~그럼 내일 아침에 보자~"

저 주신이 그렇게 말하니 왠지모를 불안함이 생기는건 분명 나만이 아닐것이다
주신이 사라지고 에바스에덴에서는 내일있을 유희에 잔뜩 기대된 목소리로 한참이니 이야기 꽃을 피웠다
어느새 밤이 찾아오고 네명의 정령왕은 각자 여행을 위해 자신의 영역으로 돌아가 준비하고 내일 아침 만나기로 했다.

<다음날>
"얘들아 나왔어~"
"오셨습니까,엘"
"어서와~"
"늦었잖아.하여튼 느려 터졌어"
"하하 미안미안."
"냐하하~그럼 이제 다들 모인거지?"

빛과 함께 나타난 주신이 말했다

"주신님 저희가 갈 차원은 어딘가요?
"아~그건 내가 다스리는 차원중 하나야.겉으로 봤을땐 약간 여기와 어느정도 비슷하지만 그곳에는 마법사나 정령사들은 존재하지 않아.당연히 정령들도 없지만 머희들이가면 자동으로 정령들은 생겨날꺼야"

...어쩔수 없이 정령사로 설정했던 미네와 이프리트는 검사로 전환. 결국 모두가 검사가 되었다
다행이 정령왕인지라 모두가 검술에 뛰어났다

"그럼 이제 출발하자~"《엘
"그래"《모두
"냐하하~잘 다녀 오렴~"

주신이 손가락을 튕기자 우리는 소환진늘 밟을때처럼 몸이 빨려들어가는 것을 느끼며 차원이동을 했다

<어느차원>
어디선가 누군가의 비명소리가 들렸다

"우와아아악!!이 망할 주시이이인!!!"

그렇다. 그들은 하늘에서 떨어지도 있었던 것이다.
다행이 미네가 떨어지기 직전 바람으로 잡아주어 흙바닥에 박히는 꼴은 면했다.
바닥에 무사히 착지한 네명은 일단 주위를 둘러보았다
울창하게 이루어진 나무들을 보니 여긴 산인것 같았다
그때 어디선가 부스럭거리는 소리와 나뭇가지가 부러지는 소리가 났다. 꽤 멀리서 들린 것이긴 했지만 청력이 좋은 그들은 그 고리를 듣기에 충분했다.
저 멀리서 오고 있는 사람은 총 7명이였다 남자 6명에 여자 1명 여자는 후드를 쓰고 있었도 등에는 활을 매고 있었다 요

병은 아닌것 같고 평범한 여행자들 같았다
그들이 정령어로 대화하고 있는 동안 아므새 다가온 그들중 후드를 쓰고 있던 여자가 나와 우리에게 말을 걸었다.

"저기.."
"...누구세요?"《엘
"이근처에서 비명소리를 들어서요"

순간 얼굴이 붉어진 엘이였다.창피함에 고개를 숙이자 뒤에서 트로웰이 킥킥거리며 웃기 시작했다

"걱정해주셔서 감사합니다.이제 괜찮아요"

그때였다. 갑자기 어디선가 기괘한 소리가 들리더니 그들을 향해 빠르게 돌진했다.
그런데 저것은..

"베히모스?!?!"

말도안돼. 베히모스가 왜 여기있는거야?여긴 마물이 없을텐데?

"공주님!위험하니 물러나 계세요!"
"하지만!"
"빨리요!"

호위무사처럼 보이는 남자의 말에 여자와 미소년 한명이 멀리 나무 뒤로 숨었다

-음..이거 도와줘야겠지?-《엘
-뭐..도와주지 않으면 저들은 그대로 즉사겠지. 실력은 있어보이지만 그래도 베히모스는 평범한 상대가 아니니깐-《트로웰

의논끝에 베히모스를 처치하는건 내가 되었다
엘은 검을 빼어들면서 그들에게 다가갔다
그들은 난생 처음보는 생물에 굉장히 당황해하며 싸우고 있었다

"저기요!그놈은 제가 처리할테니 잠시만 나오계셔주세요"

나는 은근슬쩍 정령왕의 기운을 조금 풀으면서 말했다
그들도 내 기운을 느껴서인지 순순히 비켜주었다
그리고 나는 내앞에 있는 베히모스 위로 훌쩍 뛰어 빠르고 군더기 없는 동작으로 순식간에 베히모스를 처리했다
베히모스가 죽은걸 확인한 엘은 모두에게 돌아갔다
그런데 아까부터 우리를 쳐다보거 있던 여자가 내게 다가와 물었다

"있지 너희들 할일 없으면 우리랑 같이 여행하지 않을래?"

다짜고짜 하는말에 우리는 상당히 당황스럽기는 했지만 어차피 우리도 유희를 온것이기에 흔쾌히 수락했다.

"내이름은 엘이야.편하게 말놔두되"
"난 트로웰"
"전 미네라고 합니다"
"난 이프리트야"

"우리가 각자 소개를 하자 여자는 후드를 벘었다.그녀의 머리색은 이프리트처럼 붉지만 태양에 가까운 이프리트와는 달리 이여자의 머리색은 새벽하늘색(?)같았다
여자는 웃으면서

"내 이름은 연화야"

===
공백포함:2886
공배제외:2342
여기까지 인데 정엘과 섞인 이걸 제가 갠적으로 좋아해서 섞었보았습니다.(절대★광고 또는 홍보 아니에요)

잘 모르시는 분들도 스토리상 필요한 부분은 짧게 설명을 할꺼구요

팬픽을 찾이보다가 같은 만화와 엮은 분이 계셨는데 끝이 나지 않아서 제가 한번 제 생각대로 끄적여 봅니다.주제 강탈